

2021년 세 번째 호 (통권 36호)

# 별마루 이이느기

(屋村, 별성마을촌)

떨어진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예요.

- 낙엽이섬, 서울 꿈새김판 -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성촌의 집**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 소심지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 별마을 이야기

(星村, 별 성 마을 촌)

## Contents

2021 Vol. 36

- 03    프롤로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소회)
- 04    별마을이야기#1 (주말풍경)
- 05    별마을이야기#2 (보고싶은 얼굴)
- 06    별마을이야기#3 (요리가 주는 행복)
- 07    별마을이야기#4 (별마을마트 오픈!)
- 08    별마을이야기#5 (나른한 오후를 함께 즐기는 법)
- 09    별마을이야기#6 (보름달에 소원을 바라며, 한가위를 지내요)
- 10    별마을이야기#7 (별난 일일캠핑)
- 12    별마을이야기#8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에요!
- 13    행복한동행
- 14    좋은이웃들 (공감지기기자단 결성!)
- 15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친 후의 소회

코로나2차 접종을 마치면 교회도  
가고 외출이 수월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가 발목을  
잡을 줄이야 언제쯤 교회를 자유  
롭게 갈 수 있을까 싶네요?  
- 이○우 -

코로나19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 장○택 -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문자로 안부를 전하고 있지만  
교회를 못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해요.  
- 이○준 -

예방 접종 전에는  
주사도 아프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아파요.  
나가지 못하는게 아쉬워요  
- 김○영 -

집에 못가서 싫어요.  
언니도 보고 싶고 엄마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 김○정 -

다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 고○희 -

집이 가까운데도 가지 못하고  
엄마도 못보니까  
코로나가 싫어요.  
- 김○경 -

코로나19예방 접종을 해도  
변종바이러스가 생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김대식 사회복지사 -

접종전에는 언제мна 기다리고  
접종후에 아플까봐 걱정하고  
2차까지 접종이 끝나고  
코로나19 가 여전히 무섭습니다.  
정신차리고 방역 열심히 해야겠어요.  
- 최성희 사회복지사 -

# 주말풍경

## 석고 방향제 만들기

여가활동으로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어요.  
기대를 안고 참여해 보았어요.  
드라이플라워가 들어간 예쁘고 향기가 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석고반죽을 모양틀에 넣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에 쳐야하는 과정이 이리 힘들 줄은 몰랐어요.  
복지사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어 완성을 했는데 향기가 좋아요.  
책상에 올려 놓으니 한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 보드게임

별마을 동아리들 중에 노래를 즐기는 이용자들이 있는가 하면,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심심한 주말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게임기 중에서  
각자가 선택한 게임기로 여가를 즐깁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간이 되어 게임 동아리가  
우리 곁에 있어서 참 좋아요!



## 지금은 기도할 때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는 지역사회를 쉽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인원 제한을 두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중보 기도팀을 만들고 코로나 19가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 보고 싶은 얼굴



B동에 사는 강○태님과 A동에 사는 김○주님은 이성친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별마을 안에 같이 살고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태님에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원자가 물어보니,

“○주, 김○주요.”

라고 말하며, 창문 너머에 이름을 반복해 부릅니다. 그리움이 묻어 공기를 타고 그리운 사람에게 들리도록 불러봅니다.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걸어봅니다. 지원자가 옆에서 핸드폰 사용을 도와주었어요. 강○태 이용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영상통화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에 김○주님의 얼굴이 나오자, 강○태님은 어색함 반, 반가움 반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강○태님의 인사에 김○주님도 안부를 묻습니다.

“○태 오빠 잘 지내고 있지? 난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짧은 안부인사를 뒤로하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강○태님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보고 싶은 얼굴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자는 빠지라고 옆으로 손짓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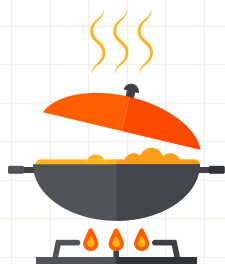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일상을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잘 지내. 다음에 봐. 코로나 조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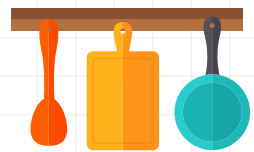
“응. 너도.”

손을 흔들며 마지막까지 아쉬움의 인사를 하며, 영상통화를 마무리합니다.





# 요리가 주는 행복



나는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하고 싶은 요리를 찾아 매월 1회 요리를 한다.  
인터넷으로 레시피가 결정되면 복지사와 인터넷 구매를 하고 요리일정을 계획한다.  
이번 달은 갓가지 야채를 넣은 겉절이를 하기로 했다.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 이동 식탁과 의자에서 요리를 하기로 했다.  
주방이 분주해진다.  
복지사는 칼, 도마를 준비하고 나는 냉장고에서 필요한 양념을 꺼낸다.  
고추가루 2스푼, 간장 스푼, 마늘1,2 스푼 등등  
요리에 관해서는 양념 배합에 있어 외우기도 잘한다.  
칼질도 이제는 능숙하게 해낸다.  
요리가 완성되어  
3층 자립팀 동료들이 맛있게 먹고 인사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하다.  
코로나가 끝나면 아버지께도 내가 한 요리를 대접해야지!



이 글은 강○우 이용자가 아버지에게 직접 요리를 하여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촌의집에서 열심히 요리연습을 할 때 표현한 언어와 감정들을 지원자가 각색한 내용입니다.

# 오픈! 별마을마트

별마을캠핑 기간동안 별마을마트가 오픈했습니다.  
마트를 오픈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용자분들이 직접 마트직원이 되어 운영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마트직원으로서 익혀야 할 손님응대방법, 상품 진열하기, 가격  
표 붙이기, 코로나19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등 다  
양한 역할에 대해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별마을마트 오픈~!

매장준비를 하는 마트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물건을 사러온 다른 동료이용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비어  
있는 진열에 상품을 채워넣고,  
코로나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안내하고, 계산도 하고, 할 일  
이 엄청 많았지만  
마트직원들이 힘을 합하고 역할을 나눠서 걱정했던 것보다 순  
조롭게 운영되었습니다.

별마을마트에 찾아온 손님(동료이용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마트 같아~!”

“물건도 괜찮네.”

“이거 얼마예요?”

“못 보던 물건도 있네.”(오픈 2일째)

별마을마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아 구매한 손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 했습니다.

마트 오픈 3일째

손님으로 방문한 이○우 이용자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 별마을마트를 계속 열어 필요할  
때 과자, 음료 등 간식과 일상용품들 자유롭게 사으면 좋겠어요.”

마트직원으로 일했던 김○정 이용자도 함께 의견을 주었습  
니다.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별마을마트에 준비부터 오픈, 운영까지 함께 참여한 이용자  
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마트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겼  
다는 말에 이들의 마트 운영을 담당하여 도왔던 저도 뿌듯해  
했습니다.

별마을마트 직원으로 함께 일해주신 이용자(최○식님, 이○준  
님, 김○정님, 김○영님, 김○경님)분들과 사회복지무원(호○  
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최성희 사회복지사 -



# 나쁜한 오후를 함께 즐기는 법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 더웠던 날씨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문을 열어두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이용자들이 들뜬 기분으로 입구 마당에 돛자리를 폈습니다.  
돛자리에 앉아 있으니, 배도 부르고 바람도 좋고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이거 같이 할래?"

박○란님이 그림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숨겨진 카드에 어떤 그림이 있을지 힌트를 듣고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좋아. 같이해."  
"나도!!"

관심이 생긴 장○임님, 김○신님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박○영님은 그런 동생들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의자에 앉아 구경을 했습니다.

게임이 지루해질 즈음 마실을 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가는 것은 어려워서 구름다리 건너 별마을 지도를 보러갔습니

다. 여럿이 자리에 앉아 코로나19가 끝나면 동네 어디를 놀러갈지 함께 얘기했습니다.

"CU갈거야. 편의점."  
"나는 엄마집에서 자고 와야지."  
"나도 동생 있는 집에 버스타고 갈 수 있어."  
"교회사람들 보고 싶어요."

이용자분들 각자가 코로나19가 끝나면 가고 싶은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쁜한 오후에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도란도란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정님이 화들짝 일어서며, 동료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밥 만들 시간이야!"  
"그래!"  
"같이가!"

김○정님의 말에 다른 동료 이용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가로운 오후를 뒤로 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러 들어갔습니다.



# 보름달에 소원을 바라며, 한가위를 지내요

추석 연휴 건강히 보내셨나요?

힘든 시기에 추석을 맞아

올해도 가족들과의 인사를 마음으로만 전하며 일상을 보냈는데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살짝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요.

♣ : 우리 추석 연휴 동안 뭐할까요?

★ : 옷놀이요!

◆ : 저는 한복 입고 싶어요. 제 꺼 한복 있어요.

▲ : 난 한복 안 입을래, 걷기 불편해서요. 옷놀이는 좋아요.

♠ : 난 노래방 하고 싶다.

♥ : 노래? 나도 노래 부를래

★ : TV에 영화는 뭐한대?

● : 난 전 부처 먹을래

달력의 빨간 숫자를 보며 추석이 다가움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을 멈춰주지 않고, 추석 연휴!!

우리들만의 추석을 맞이했어요.

TV 특선 영화를 챙겨볼까? 오늘의 영화는 뭐가 있지??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 날려보자.

바질 수 없는 전통놀이, 옷놀이와 투호놀이 어때?

추석날 바질 수 없는 맛난 송편을 보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추석맞이 음식, 직접 만들어 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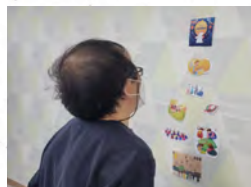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래며 보낸 추석이었어요.

비온 뒤 맑아진 하늘처럼, 밝은 보름달처럼,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도 환하게 어서 빨리 다가오길 바랍니다.

보름달에 바란 소원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 "별난 일일캠핑" 페스티벌

싱그러운 초록빛 잎새가 서서히 다음 계절을 준비할 때 별마을에서는 좋은 날씨를 벗삼아 별난 일일캠핑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여행의 트렌드를 차박, 캠핑으로 바꾸었기에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여행보다는 캠핑에 목소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별마을 안에서 캠핑을 즐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룹별로 캠핑을 언제 할지, 어떻게 즐길지, 어떤 메뉴로 식사를 할지 등 이용자자치회의를 하였습니다.

“집 안에 텐트를 쳐요!”  
“저번에 캠핑카도 좋았는데 또 하는건 어때요?”  
“맞아 그거 좋았어.”  
“텐트 치는거 좋아~ 내가 직접 쳐볼래요.”  
“같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탁구요~!”  
“캠핑할 때 TV에서 삼겹살 구워먹던데.”  
“코로나잖아. 그냥 시켜먹자.”  
등등



이용자들이 서로 자신이 생각한 캠핑을 자치회의에서 주고 받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자치회의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함께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환경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긴 회의시간을 거쳐 소그룹별로 캠핑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원터치텐트를 직접 쳐보기도 하고,  
배달음식을 직접 서빙해서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텐트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카라반 안에서 달콤한 꿀잠을 자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으로 노래자랑과 댄스대회도 하고, 별마을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기도 하고,  
가정식을 만들어 먹을 때의 요리솜씨를 뽐내며, 삼겹살을 굽고, 보쌈고기를 준비하고,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 캠핑의자에 멍하니 앉아 사색을 즐기기도 하고  
시원한 음료한잔과 함께 하는 짜릿한 액션영화를 감상하는 등

남이 정해준 패키지여행도 좋지만 직접 계획하고 돌아다니는 자유여행의 매력도 있는 만큼 이번 별난 일일캠핑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즐기고, 지원자는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환경을 준비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에요!



복지사들은 항상 일을하며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해요.

혹시나 잠시 화장실을 갔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이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용자가 잠을 잘 때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 외부로 이동했을 때 등등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원이 없는 다른 장소에서 이용자가 다치지 않을까,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 하였습니다.

갑자기 생겨있는 상처에 깜짝 놀라고, 밤중에 갑작스레 들린 큰소리에 어디서 난 소리인지 헉레벌떡 찾아다니기도 하고말이죠.

저희 성촌의집에서는 이러한 복지사들의 고충과 이용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각 생활동에 IOT,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IOT는 이용자가 수면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특이사항을 바로 복지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긴급상황에 SOS를 부를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있어요!

CCTV는 우리 보지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한번 발생했던 위험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복지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IOT, CCTV. 덕분에 복지사들은 더 열심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한 삶을 위하여 화이팅!

# 행복한 동행 그이상의 아름다움

가족공원사업단



화단꾸미기 봉사

동그라미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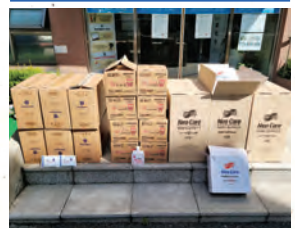
도시락 배달 봉사

한우리봉사단



도시락배달 봉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코로나19 대응물품

교촌경인유통



교촌치킨 후원

기독교대한감리회 부평교회



쌀

김성진한의원



공진단

안스베이커리 구월점



베이커리

인천공동모금회



코비드19후기트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김치

함께하는 사랑밭



구급함 외 2종

“성촌의집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십정2동 장소를 취재해보자.”

## 동암누리 '공감지기 기자단' 결성



성촌의집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청소년 5명이 모여 동암누리 '공감지기 기자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멋지게 수료하고  
2021년 9월 13일!!! 드디어 공감지기 기자단 임명식을 가지고  
정식으로 동암누리 '공감지기 기자단'이 결성되었습니다.

동암누리 '공감지기 기자단'은  
성촌의집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십정2동 지역이용시설을 취재, 인터뷰하고  
취재한 장소를 바탕으로 성촌의집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동암누리 '공감지기 기자단'의 멋진 활약 기대해주세요.

본 사업은  **사랑의열매**가 지원합니다.  
—연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후원자 명단 (2021.06.01.-2021.08.31.)

### + 신규후원자

개인 : 김혜옥, 오선아, 정국화

### + 지정후원금

개인 : 임미정

단체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신청사업)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검정콩각지, 굿굿, 가부, 길라잡이, 낙간, 다솜, 도라, 박명숙, 뽀새, 삐요, 숨은천사, 신민진, 신은채, 유민영, 아이리스, 악어새, 연우, 에이취, 이사미, 이미복, 이은주, 일상의 행복, 전장, 찔니, 최원준, 현우, 현우야 사랑해, 해민공주, Bonnie, CoffeeHolic, cacao, ell, harnas, mayriel, moo, moyamoya12, my love, namcheol1220, Only-Way, PAN, riu0213, Summer, xxx

### + 비지정후원금

CMS : 김은미, 김인수, 손대원, 이구형, 이은주(부평우체국), 윤재경, 정금자, 조근태, 조성숙

개인 : 강민형, 강혜민, 김대식 김숙정, 김현보, 김혜옥, 박남호, 박왕진, 서영재, 서하나, 신차남, 오선자, 유정운, 유은율, 유은찬, 원혜신, 이미복, 이성일, 이수복, 이은주(성촌의집), 정상용(이한희), 이향란, 장순, 정민영, 전정호(이춘희), 조경진, 최원준

단체 : 건강길약국, 교촌에프앤비(주), 동암교회, 라성약국, 부평감리교회, 인천중앙감리교회

### + 후원물품

코로나19대응물품(마스크 등) : 안경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밭, 공진단, 김성진한의원 김성진한의사

주부식(쌀, 고기, 김치재료, 도시락, 부식 등) : 동그라미봉사단, 부평감리교회,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한우리봉사단

간식(치킨, 빵, 떡, 커피, 음료수, 과일 등) : 교촌경인유통, 김대식, 김인숙, 김현호, 송성희, 안스베이커리(구월점), 장순, 정국화

기타(모닝 정기점점, 일상용품, 화분모종 등) : 가족공원사업단, 이향란, 시흥현 대모터스, 장순, 태은실

## 👏 자원봉사자 명단(2021.06.01.-2021.08.31.)

### 단체 봉사자

#### <동그라미 봉사단> - 중식 도시락 배달

오현주회장, 나태현총무, 김경숙, 김기복, 김인선, 김현미, 민영희, 박병학, 방혜원, 서금란, 신철균, 안영란, 이금희, 이정혁, 임충휴, 정옥원, 최계한, 최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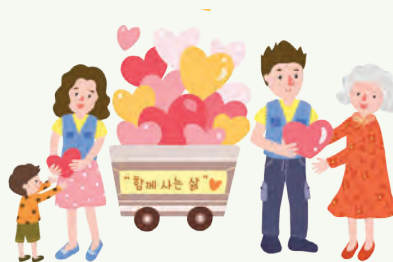
#### <한우리 봉사단> - 중식도시락 배달

김지현회장, 강신자, 김종숙, 김지영, 엄옥자, 오연자, 장배원

#### <가족공원사업단> - 여름 꽃으로 화단 꾸미기

##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2021.06.01.-08.31.)

세 입			세 출		
지정 후원금	2021년 신청사업 2차 (인천공동모금회)	8,000,000	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824,520
	지정후원금	30,000		공공요금	652,640
	해피빈	358,200		제세공과금	750,000
비지정 후원금	CMS후원금	140,000		기타운영비	20,000
	단체후원금	2,060,000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8,000,000
	개인후원금	5,925,680	사업비	의료비	100,000
합계		16,547,783		의료재활사업비	48,000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852,060
				영양관리사업비	309,000
			합계		12,556,220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성촌의집 이동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 민 은 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 협 은 행 301-0072-5929-41  
우 체 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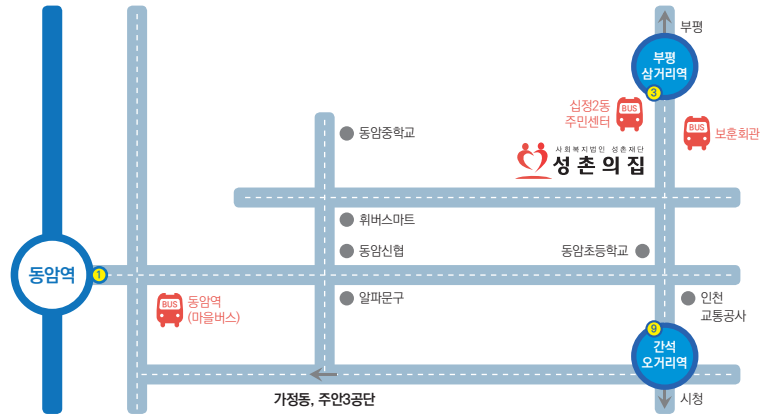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청소용품, 마스크, 여성용품)  
가전제품(컴퓨터, 건조기, 밥솥)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스크린)  
보조기기(리플라이너 침대 등)

###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동장애인과의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십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 해피빈공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공배너를 클릭하고  
공(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공 기부



별마음이야기 2021년 세 번째 호 (통권36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이향란, 김기철, 최성희, 장 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디자인 | 헤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